

우울증 서사로 보는 <콩쥐팥쥐>·<상사뱀>·<고분지통>*

강미정**

<차례>

- I. 서론
- II. 의존과 무기력에 관한 서사 — <콩쥐팥쥐>
- III. 집착과 흑백논리에 관한 서사 — <상사뱀>
- IV. 수치심과 공정성 욕구에 관한 서사 — <고분지통(鼓盆之痛)>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우리 설화작품으로부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문학치료적인 단서 찾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문학치료학에서 서사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기초서사 네 영역(자녀서사영역, 남녀서사영역, 부부서사영역, 부모서사영역) 중에서 자녀서사 영역에 속한 작품인 <콩쥐팥쥐>, 남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 <상사뱀>, 부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 <고분지통> 등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리하여 <콩쥐팥쥐>, <상사뱀>, <고분지통> 등에 각기 서로 다른 우울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한 해결방식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콩쥐팥쥐>에서 콩쥐는 '의존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증상을 극복하는 데에는 따뜻한 배려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엄정한 가르침이 필요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사뱀>에서 상사뱀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처녀는 '집착과 흑백논리'에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59차 학술발표대회(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403호, 2007년 8월 23일 목요일)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지정토론을 해주신 신윤경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서사외문학치료연구소 전임연구원

빠져 있었으며,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한 상태에서는 다정하게 감싸주지만, 일정 정도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냉정하게 밀쳐내는 일이 필요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분지통>에 등장하는 수절하지 못한 부인은 ‘수치심과 공정성욕구’에 얽매어 있었으며,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그러한 감정을 걷어내거나, 시험하는 것은 위험하며,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배려하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 속에서 ‘의존과 무기력’, ‘집착과 흑백논리’, ‘수치심과 공정성욕구’ 등의 짝으로 나타나는 우울 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 어떤 증상과 어떤 증상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발병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문학치료현장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작품서사로 활용되는 경우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작품들이 각기 다른 기초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녀의 입장에 서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며,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위축되어 고민하는 경우에는 <콩쥐팥쥐>와 같은 작품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절히 사용될 것이며, 남녀관계의 문제가 고민인 경우, 특히 짝사랑으로 가슴 앓이를 하는 경우에는 <상사뱀>과 같은 작품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절할 것이다. 또한 부부간 가치관의 차이로 현상에 대한 이견과 그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분지통>과 같은 작품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절하리라 본다. 물론 문학치료현장에서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고 다양하게 이상심리와 관련된 작품분석이 집적되어야 하고, 접근방식의 구체적인 실상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우울증을 위해서는 위의 세 작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주제어 문학치료, 작품서사, 우울증, 우울증 서사, 의존, 무기력, 집착, 흑백논리, 수치심, 공정성욕구

1. 서론

2006년 7월 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립서울병원과 이화여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러한 자살자의 60%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¹⁾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울증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병인가. 이에 대해서 이상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을 기분장애²⁾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우울증(depression)이란, 깊은 슬픔과 염려, 무가치감과 죄책감, 남들과 동떨어짐, 불면증, 식욕 및 성욕의 상실, 또는 일상사에 대한 즐거움 및 흥미의 상실이 두드러진 특수한 정서 상태이며, 이러한 정서 상태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라 한다.³⁾ 또한 우울증의 인지치료에서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1) 정서증상(슬픔, 자기비난, 죄책감, 수치심, 불안), (2)동기증상(긍정적 동기의 상실과 회피소망의 증가, 의존성의 증가), (3)인지증상(우유부단함,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심, 자기비난, 흑백논리, 주의집중과 기억의 곤란)등을 주요하게 다루기도 한다.⁴⁾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수반되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우울제 약물은 약 60~65%만이 삼환계 약물치료를 뚜렷한 호전을 보이며, 35~40%의 환자들은 약물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⁵⁾ 그렇기에

1) 네이버뉴스, 국민일보(2006-07-07)

2) Gerald C.Davison, John M.Neale, Ann M.Kring 지음, 이봉건 옮김,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시그마프레스, 2006년 초판3쇄, p.194. 기분장애(mood disorders)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슬픔과 조증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인 의기양양상태와 자극과민상태에 이르기까지 정서상의 극심한 장애를 말한다.

3) Gerald C.Davison, John M.Neale, Ann M.Kring 등 지음, 이봉건 옮김,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시그마프레스, 2006년 초판3쇄, p.194.

4) Aaron T.Beck 지음, 원호택 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학지사, 2001년 1판 3쇄, pp.206~242.

우울증은 약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 치료법을 필요로 하는 이상심리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학치료 연구자인 필자는 문학치료를 통한 우울증 극복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환자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치료학에서 이와 같이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서사(자기서사)를 변화시키는데 문학작품의 서사(작품서사)가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작품서사를 통하여 건강하지 않은 자기서사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하면서, 심신을 괴롭히던 갈등 해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⁶⁾ 따라서 문학치료를 통한 우울증 극복은 가능하리라 본다.

최근 문학치료 연구논문 중에서 우울증과 작품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한 예로는 정운채의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와 조은상의 「<엷질러진 물>에 대한 반응특성과 우울성향의 부부서사를 들 수 있다. 정운채는 <지네각시>설화 속의 남자주인공이 보여 주는 행동 방식, 이를테면 가난을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우울증상을 포착하고, 주인공이 우울증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서사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문학치료현장에서 <지네각시>의 여러 이본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내는 결말을 잘 활용한다면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문학치료 전략까지 제안한 바 있다.⁷⁾ 조은상은 우울증이

5) Aaron T.Beck 지음, 원호택 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학지사, 2001년 1판 3쇄, p.16.

6)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문학과학, 2006년 초판 1쇄, pp.315~324 참조. 자기서사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말하고, 작품서사는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학작품의 서사를 말한다. 정운채는 그와 같은 작품서사의 힘을 <구토지설>, [보한집]의 시화, <구운몽> 등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7) 정운채,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 『문학치료연구』 제5집, 문

어떠한 자기서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6일~6월 18일까지 10차시에 걸쳐 구립도서관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기혼여성 6명을 대상으로 <엮질러진 물>이란 구비설화를 바탕으로 부부서사를 구성케 하고, 그렇게 구성된 부부서사를 실제로 우울증으로 내원하여 부부관계에 관해서 언급한 30대에서 40대 기혼여성 14명의 반응과 비교하였다.⁸⁾ 그리하여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부인들이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다. 남편은 나의 희생을 몰라주는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엮질러진 물>이란 설화에 대한 반응의 유사성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문학작품으로도 우울증 진단과 치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콩쥐팥쥐>⁹⁾와 <상사뱀>¹⁰⁾과 <고분지통>¹¹⁾ 등 설화 3편에 나타난 우울 증상과 그 해결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논의의 중심을 각 설화 속 인물의 문제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증상과 그러한 증상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인물을 둘러싼 불가항력적인 환경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할

학과치료, 2006, pp.165~169.

- 8) 조은상, <엮질러진 물>에 대한 반응특성과 우울성향의 부부서사,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제67차 학술대회 발표, 강릉대학교 생명과학 2호관 227호, 2007년 7월 9일~10일.
- 9) 엄수경, <콩쥐팥쥐>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 고찰, 『남도민속연구』 제13집, 2006, pp.250~251 참고.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8편 정도가 전해지고 있다. 엄수경에 따르면, <콩쥐팥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으로 12편이 출간되는 등 아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작품이기도 하다.
- 10)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pp.118~122 참고. <상사뱀>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41편 정도가 채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41편에는 상사병에 걸린 경우와, 상사병에 걸린 인물이 상사뱀이 되고 마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1) <고분지통>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9편 정도가 채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수 있다. 사실 <콩쥐팥쥐>의 주인공인 콩쥐는 계모로부터 학대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 <상사뱀>의 주인공인 상사뱀으로 죽어가는 인물들은 대개 미천한 신분이나, 사회통념에 얽매어 사랑을 고백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고분지통>의 주인공인 과부는 개가를 백안시하는 사회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개인적인 자질보다는 그들이 처한 숨 막히는 환경으로 인하여 우울한 탓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우울증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황폐한 환경도 오직 취약한 사람에게만 우울증을 일으키며, 우울증의 인과관계에서 공유된 환경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¹²⁾고 한다. 이로 본다면 우울증은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러한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개인 성향의 차이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상심리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울증 서사로 이들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인물을 둘러싼 환경보다는 인물의 심리와 행동방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 Peter D. Kramer 지음, 고정아 옮김, 『우울증에 반대한다』, 플래닛, 2006, p.174. 이러한 견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우울증에 대한 캔들러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관련되는 사실상 모든 환경은 비공유된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의 예상에 어긋난다. 애정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쌍둥이들은 우울증에 취약하고, 자상하고 다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들은 기분장애의 위험이 덜하다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경험의 영향력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성인대상 연구들을 보면, 공유된 환경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사실상 전혀 발휘하지 않는다. 우울증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무관심한 부모, 냉담한 교사, 가난은 분명히 우울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다. 우울증의 경우, 겉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환경도 언제나 정신의 인지과정과 두뇌 구조의 특성에 의해 매개된다. 전 세계의 여러 연구 집단이 이런 결과를 재연했다.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막아주는 경험은 비공유 경험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상당한 내용을 함축한다...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비공유 경험’만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이 연구는 경험을 해석하는 자아의 역할을 강조한다. 황폐한 환경도 오직 취약한 사람에게만 우울증을 일으킨다. 우울증의 인과관계에서 공유된 환경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환경의 많은 부분을 뒷자리로 밀어버린다.(같은 책, pp.171~174)

또한 이 세 편의 설화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문학치료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작품들이기도 하다. 문학치료에서는 인간의 심리가 서사에 의하여 운용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서 기초가 되는 네 가지 기초서사영역을 정립한 바 있다.¹³⁾ 그에 따르면 <콩쥐팥쥐>는 자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이며, <상사뱀>은 남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이며, <고분지통>은 부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이다. 그렇기에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자녀서사영역, 남녀서사영역, 부부서사영역에 따라 우울 증상이 다르게 탐색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콩쥐팥쥐>와 <상사뱀>과 <고분지통> 등이 우울증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들 작품이 문학치료현장에서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그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II. 의존과 무기력에 관한 서사 — <콩쥐팥쥐>

우리들에게 콩쥐팥쥐는 계모의 박해로부터 어렵게 삶을 지탱해 온 전처 자식의 일대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콩쥐는 착하디착하고, 여리디 여린 심성의 인물로 받아들여졌고, 또 그런 면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콩쥐에 대해서 수궁하고 동정하던 시선에 머물지 않고 그 소녀의 문제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콩쥐의 반복적인 행

13)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시론',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문학과치료, 2006년 초판, p.401 참고.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본질과 핵심을 인간관계로부터 찾는다. 그에 따라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서사(敍事)란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서술'이 된다. 그리고 문학치료학에서는 인간관계에 따라 4개의 기초서사영역을 구분하는데, 그것은 자녀서사영역, 남녀서사영역, 부부서사영역, 부모서사영역 등이다.

동방식은 건강하다고만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설화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옛날에 콩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팔쥐를 데리고 있는 새어머니가 들어 오게 되었다.
- (2) 새엄마는 콩쥐를 괴롭히는데 김을 매리 가도 콩쥐에게는 낭구(나무) 호미를 주고 팔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었다. 나무호미가 부러져서 밭에서 콩쥐가 울고 있으면 노인과 사슴이 나타나서 밭을 대신 매주었다.
- (3) 새엄마는 콩쥐에게 갱피(강피. 피의 한 종류. 가스랑이가 없고 빛이 붉음) 한 섬을 찢어 놓고 밭 빠진 두멍(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시키고는 나라에서 여는 잔치에 팔쥐와 같이 갔다.
- (4) 콩쥐가 밭 빠진 독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두꺼비가 기어 나와서 도와주고 갱피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주었다. 그런 후 암소가 옷 한 벌과 꽃신을 갖다 주어서 콩쥐가 그걸 입고 잔치에 구경을 가는데 도랑을 건너다가 진신(들기름에 곁어서 만든 진땅에 신는 가죽신)을 잃어버렸다.
- (5) 왕자가 그걸 주워서 그 신발에 맞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 팔쥐가 억지로 신으려니까 떡설(군살)이 많아서 안 들어가고 콩쥐가 신으니까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 (6) 그런데 팔쥐가 콩쥐를 부르더니 연못에 빠트려 죽이고 콩쥐 행세를 하면서 왕자와 대신 결혼했다. 왕자는 팔쥐가 콩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밥상에서 젓가락이 짹짹기여서 이상하다고 말을 하니깐 밖에서 “젓가락이 짹짹기인 것만 알고 부인 바뀐 것은 모르냐”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왕자가 나가보니까 꽃에서 나는 소리였다. 옆에 있던 팔쥐가 얼른 꽃을 뽑아서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렸다.
- (7) 이웃집 아주머니가 불씨를 구하러 왔다가 잣더미 속에서 구슬을 꺼냈는데 갑자기 구슬에서 콩쥐의 혼령이 나왔다. 콩쥐의 혼이 왕자에게 가서 자기가 연못에서 죽었으니 시체에 구슬을 묻질러서 살려달라는 것이었

다. 왕자가 연못에 물을 빼고 콩쥐의 시체에 구슬을 바르니까 콩쥐가 회생해서 왕자는 콩쥐와 잘 살고 팥쥐와 새엄마는 잡아다 불기를 치고 하옥을 시켰다.¹⁴⁾

콩쥐의 반복적인 행동으로는 힘겨운 임무를 수행 받았을 때에 늘 울기만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¹⁵⁾ 대개 받을 때마다 나무호미가 부러지면 밭에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미를 빌리던가, 집에 다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야단을 맞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콩쥐처럼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다는 것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대책을 세우기가 싫어서 회피하고 있거나, 울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안이한 행동방식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콩쥐가 또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콩쥐는 이제 스스로 무언가 해 봐야겠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다시 울고 만다. 이전의 노인이 도와주었을 때에 콩쥐가 뭔가를 깨달았거나, 제대로 살폈다면 나름대로 복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것이다. 그러나 콩쥐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콩쥐는 자꾸 도움을 얻는 것에 기대어서 자신에게 미미하나마 존재하던 자기실현의 힘을 상실하고 매번 울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 해결하기를 바라기만 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¹⁶⁾

14) 『한국구비문학대계』 1-4, <콩쥐팥쥐>, 진접면 설화2, 이순희(여, 60), pp.785~789.

15) Aaron T. Beck 지음, 원호택 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학지사, 2001년 1판 3쇄, p.205. 우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울증에서 흔한 증상이다. 여성에게서 이 증상을 자주 볼 수 있다. 때때로 환자들은 울고난 후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더 우울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16) 김종술, 이한주, 한수정, 『사례로 읽는 임상심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217 참고. 심리적인 무력감이 많고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자기주장이나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경우, 만성적으로 불만감이 가득차 있고 수동공격적인 성격패턴이 생성될 수 있다. 때때로 수동공격적인 행동은 지나친 울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수동공격적인 과도한 울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그리고 수동공격적인

이러한 콩쥐는 매우 의존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콩쥐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머니가 시킨 일을 거뜬하게 해냄으로써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타난 콩쥐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사실은 순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악행을 부추기는 어긋난 순응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콩쥐의 자립심은 자라지 못하고, 매번 의존하게 만드는 퇴행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¹⁷⁾

그러니까 콩쥐의 착하다 착함은 더 이상 착한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콩쥐는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적인 상황을 극대화함으로써 계모를 박해자의 입장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능력 없음을 가녀린 모습으로 포장하여 능력 없음에 대한 질책을 피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콩쥐는 스스로를 매우 힘없고 불운하다고 여기면서 주변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강인하고 행운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은 더욱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우울증 환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 된다. 이로 본다면 <콩쥐팥쥐>는 의존과 무기력했던 한 소녀에 관한 서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존과 무기력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왕자의 눈에 띄어서 이제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콩쥐가 팥쥐에 의해서 연못에 빠져 죽게 되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강조된다.

팥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콩쥐는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후에는 사람이 달라진다. 죽기 전의 콩쥐였다면, 영영 울면서 귀신으로 나타나서 자신이 죽었으니, 다시 살려달라며 하소연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죽은 콩

(부모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 위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17) Aaron T. Beck 지음, 원호택 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학지사, 2001년 1판 3쇄, p.214. 강한 의존성은 우울증의 보편적 증상이다.

쥐는 꽃으로 환신하여 남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사실은 팍쥐라는 것을 “젓가락이 짝짝이인 것만 알고 부인 바뀐 것을 모르냐”며 남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팍쥐가 꽃으로 환신한 자신을 다시 죽였을 때에는 구슬로 환신하여 연못에 빠져 죽은 자신을 어떻게 하면 환생시킬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알려주어서 무사히 환생하게 된다.

콩쥐는 죽음이라는 파국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틀을 세우는 데에 이르러서야 의존과 무기력이라는 우울증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자립과 활동력을 지닌 인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의존과 무기력으로 점철된 우울한 삶을 벗어나려면, 그동안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벗어나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바닥으로부터 일어설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리해보면, 우울증과 긴밀한 작품서사로 <콩쥐팍쥐>를 읽었을 때에 콩쥐가 매번 울고 있는 상황은 난감한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에 멍한 상태로 무기력해지는 우울증에 따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콩쥐가 언제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했지만, 그러한 도움이 궁극적으로 콩쥐의 자립의지를 부양시키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콩쥐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크게 달라져 자립적인 인물이 되는 것에서 의존과 무기력한 상태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존과 무기력이 문제인 경우에는 따뜻한 배려의 손길보다는 엄정한 가르침의 손길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콩쥐팍쥐>는 자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의존과 무기력함’이라는 우울증적 증상이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자녀의 입장에 있

는 인물들이 우울증과 관련될 경우에 수 많은 우울 증상 중에서도 ‘의존과 무기력함’이 중요하게 포착될 수 있는 증상이 아니겠는가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다른 자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들을 더 검토한 경우에 구체화될 것이다. 이상으로 우울증서사로 <콩쥐팍쥐>를 읽음으로써, 우리들은 콩쥐가 실은 의존과 무기력이라는 우울의 터널을 헤쳐 나오던 소녀였으며,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어엿한 숙녀로 바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Ⅲ. 집착과 흑백논리에 관한 서사 —〈상사뱀〉

<상사뱀>은 상사병에 걸린 처녀(혹은 총각)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뱀으로 변하여 죽거나, 애정대상이었던 총각(혹은 처녀)에게 달라붙어서 결국 둘 다 죽게 되거나, 뱀만이 죽게 되는 설화군에 속한 작품이다.¹⁸⁾ 이러한 <상사뱀>설화에 대하여 강진옥은 <상사뱀>설화는 개인적 욕망 표현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규범이 인간 관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욕망이 좌절된 상황에서 죽음을 통해 몸을 바꾸어(뱀으로)자기 존재의지를 표출한 작품군이라 논한 바 있다.¹⁹⁾ 또한 임재혜는 상사병은 남녀 간의 불균형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18)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pp.118~120 참조. 각편에 따라서 상사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거나, 죽어서 뱀으로 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강진옥에 따르면 상사뱀 설화는 원혼설화에 속하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상사뱀(상사병 설화포함)설화는 크게 변신주체에 따라 남성형(남자가 뱀으로 바뀌는 경우)과 여성형(여자가 뱀으로 바뀌는 경우)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19)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pp.124~126 참조.

생긴 것이며, <상사뱀(여기에는 상사뱀 이야기 포함)>설화들은 짝사랑으로 인한 상사뱀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짝사랑병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 즉, 일방적인 사랑이 양방향 사랑으로 순조롭게 소통되는 순간 맺혔던 한이 풀리고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남녀가 사랑을 지속하고 혼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도 병은 고쳐진다. 다시 말하자면, 짝사랑의 대상이 자기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기만 해도 짝사랑의 한이 풀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짝사랑의 대상은 상사뱀을 앓는 사람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고 일정하게 사람의 마음만 배려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상사뱀(혹은 상사뱀)>설화에 대한 연구자들이 대체로 상사뱀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사뱀에 걸린 인물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애정대상자들을 고려한다면, 상사뱀 환자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우울증과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설화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조월천과 권동기라는 사람이 퇴계 선생의 수제자였다.
- (2) 조월천이 서당에 다니면서 고개를 넘어다녔는데, 그 고개에 사는 백정의 딸이 조월천을 보고 상사뱀에 걸리게 되었다.
- (3) 하루는 조월천이 고개를 넘어다니는데 백정이 자기 집에 와달라며 사정하여 조월천이 백정의 집에 갔다. 조월천이 백정 딸의 손에 수건을 감아서 한번 주물러주니 딸의 병이 조금 나왔다.
- (4) 그러나 백정의 딸이 그 뒤로도 마음을 접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다.
- (5) 하루는 조월천이 서당에 들어가는데 퇴계 선생이 보니 구렁이가 들어오

20) 임재해, 민속 문화에 갈무리된 성과 사랑의 갈래별 인식, 『실천민속학』 제8호, 실천민속학연구, 2006, p.17 참조

고 있었다.

(6) 퇴계 선생이 조월천을 무릎에다 눕혀놓고 삼작을 내다보니 구렁이가 퇴계 선생의 눈길에 그만 죽어버렸다.

(7) 조월천이 결국은 오래 못 살았다고 한다.²¹⁾

위 설화에 대해서 임재해는 조월천이 고지식하여 처녀에게 진심어린 애정을 표하지 않았기에, 결국 처녀는 죽어 뱀이 되고 말았다는 것으로 상사병에 걸린 처녀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조월천의 냉정함을 지적한다.²²⁾ 물론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혼한 동정심도 발휘하지 못한 조월천이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애정받기를 소망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다. 그렇기에 조월천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사병으로 인하여 애정을 구하는 처녀는 낯설고 두려우며 당황스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사랑을 요구하는 처녀가 더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그녀는 매우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만일 죽음을 각오할 만큼 사랑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접어두고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 그러한 용기조차 품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상사뱀>설화에 등장하는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고민하는 수 많은 주인공들은 다른 어떤 설화 속의 주인공들보다 힘든 환경 속에서 몸부림쳤는지도 모

21)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조월천의 상사뱀 물리친 퇴계선생>, 대구시 설화 10, 배동벽(남, 75), pp.72~73.

22) 임재해, 민속 문화에 갈무리된 성과 사랑의 갈래별 인식, 『실천민속학』 제8호, 실천민속학연구, 2006, p.19 참조

른다. 하지만 신분격차로 고통 받는 연인들이 모두 상사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않았고, 사랑의 고통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모두 상사병으로 구렁이로 화하는 지경에도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 설화에 나타난 처녀처럼 상사병으로 구렁이가 된 상태는 환경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소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자질과 더 밀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위 설화의 처녀처럼 조월천을 사모했지만, 스스로 어떤 노력도 시도하지 않고, 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모가 애를 써서 겨우 한번 조월천을 만나고, 그 때는 이미 시기가 늦어서 죽게 되는 비극은 처녀의 이기심이 자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과연 이 처녀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니 이 처녀뿐 아니라 상사병에 관한 다른 각편에 등장하는 처녀와 총각 혹은 유부남들의 문제는 무엇인가.²³⁾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애정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에 그 결정이 무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철회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있다. 그들은 대개 성사가 어려운 애정대상을 마음에 품은 채, 그 불가능함을 넘어서는 노력도 없고, 불가능하니까 대체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애정 대상을 얽어매려는데 집중한다. 이와 같은 성향은 바로 우울증적 증상인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집착은 우울증만의 증상은 아니지만,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이기도 하다. 특히 <상사뱀>설화에 나오는 상사병에 걸린 인물들은 모두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인지왜곡²⁴⁾을 강

23) <상사뱀>에 관한 설화에는 상사병으로 문제가 된 인물들이 처녀, 총각, 유부남 등으로 나타난다.

24) Mark Gilson, Arthur Freeman 지음, 최병휘, 이종선 옮김, 『우울증의 인지치료 — 우울증 BEAST 길들이기-』, 시그마프레스, 2006, p.30 참조. 우울증과 관련된 왜곡들은 부정적이며 역기능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부 왜곡은 어떤 환경에서는 오히려 적응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에 미치는

하게 드러내는데, 이러한 인지왜곡은 “남자(여자)없이 살 수 없어, 결혼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와 같은 일상의 문제와 긴밀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사뱀> 설화에 나타나는 상사뱀 걸린 인물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좌절하면서, 하나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강한 열망으로 인하여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중국에는 뱀이 되고 마는 것은 강한 집착에 따른 비극이다.

또 한편으로 상사뱀에 걸린 인물들은 흑백논리에 빠져있다고 보아야 한다. 흑백논리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주 휘말리는 인지왜곡(인지적 오류)중의 하나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를 말한다. 이와 같은 흑백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가능성들을 무시하고, 단지 흑과 백의 논리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에게는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야, 전적으로 옳지 않다면 완전히 틀린 거야, 난 널 사랑하거나 미워해” 등의 생각에 빠져서 고통 받는 것이다.²⁵⁾ 이러한 흑백논리는 <상사뱀>설화에 등장하는 상사뱀에 걸린 인물들이 애정대상으로부터 원하는 애정을 얻지 못하자 애정대상에게 증오를 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상사뱀에 걸린 인물이 상사뱀이 되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상황이 나타난 설화이다.

- (1) 한 총각이 이웃에 20살 먹은 부잣집 색시를 좋아 하게 되었는데 그 색시를 볼 수가 없어 병이 들게 되었다.
- (2) 부모는 아이가 죽을 것 같아 점을 보러 갔다. 점쟁이는 아들이 그 색시를 못 봐서 상사뱀이 났으니 그 색시를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25) Mark Gilson, Arthur Freeman 지음, 최병휘, 이종선 옮김, 『우울증의 인지치료 — 우울증 BEAST 길들이기-』, 시그마프레스, 2006, p.105 참조

- 다. 부모는 중매쟁이 노파를 보내 색시 집에 사정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 (3) 색시 어머니는 팔짝 뛰었다. 그러나 색시는 “나는 언제든지 남의 집에 시집가서 살게 마련이고, 남자는 남의 여자하고 살게 마련인데, 그 집 아들이 죽으면 남의 신세를 내가 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고 하였다.
- (4) 다 죽어가던 총각이 색시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자신은 이제 죽는다고 하였다.
- (5) 색시는 왜 죽느냐며, 자신 때문에 원을 했으니 총각에게 원 풀이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색시가 옷을 벗고 총각의 옷도 벗기고 자기 침을 남자의 입에다 넣어주었다.
- (6) 총각은 그 침을 받아먹고 정신을 차렸다. 색시는 이제 원을 풀었나며, 자신이 침을 먹여 살려냈으니 앞으로는 잘 살라고 했다. 그리고는 “또 그런 생각을 할 거냐?”며 총각의 따귀를 때렸다.
- (7) 총각은 매를 맞고 “다시는 너를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색시는 다른 데로 시집가서 잘 살고, 총각도 장가들어 잘 살았다고 하였다.²⁶⁾

위 설화는 상사뱀이 나타나지 않기에 <상사뱀>설화로 이해하기는 무리한 감이 있다. 그렇지만 상사뱀이 되는 사람들이 상사병에 걸렸던 인물들이고, 위 설화는 그런 상사병이 어떻게 치료되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 설화에서 상사병에 걸렸던 총각의 방으로 들어온 처녀는 총각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듯 하다가 돌변하여 따귀를 때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냐고 꾸짖는다. 이러한 처녀의 매서운 태도에 놀란 총각은 처녀에게 품었던 마음을 순식간에 씻어 버리고 건강을 되찾게 된다. 병으로부터 벗어난 총각은 그 뒤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 이 설화에 나타난 총각의 건강 되찾기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흑백논리

26) 『한국구비문학대계』 1-6, 안성읍 낙원동 설화19, <상사병 들린 총각>, 이복진(남, 80), pp.108~111.

로부터도 벗어났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착과 흑백논리라는 우울증적 문제를 털어버리는 데는 처녀의 다정한 듯 냉정하게 대하는 행동방식이 아주 유효적절한 것이었다.

이제 정리해보면, 우울증에 관한 서사로 <상사뱀>설화를 이해할 때 <상사뱀>설화는 소극적인 어떤 사람의 실패한 사랑이야기로부터 집착과 흑백논리로 점철된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된다. 즉 상사병에 걸린 인물이 일방적으로 특정 애정대상만 고집하는 것은 집착에 따른 것이며, 애정대상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진전되지 못하였을 때에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사뱀이 되거나, 상사뱀이 되어 애정대상을 증오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흑백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사병을 치료하는 해결방식으로는 <상사뱀 들린 총각>의 처녀와 같이 상사병으로 인하여 기진한 상태에서는 다정하게 감싸주고, 상사병의 고비를 넘긴 뒤에는 냉정하게 밀쳐내서 병의 뿌리를 뽑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사뱀>은 남녀 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이기에 <상사뱀>에서 찾은 ‘집착과 흑백논리’라는 우울증적 증상은 남녀서사에 속한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는 앞으로 작품을 더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상사뱀>을 우울증서사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은 일방적 사랑의 무모함에는 ‘집착과 흑백논리’라는 우울 증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울의 터널은 청년기에 한번쯤 지나오는 것임을 다시 확인케 된다. 이제 사랑에 흔들리던 청년은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어른으로 바뀌는 것이다.

IV. 수치심과 공정성 욕구에 관한 서사 —〈고분지통(鼓盆之痛)〉

<고분지통>은 대개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전개된다. 어떤 남자가 외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과부가 새로 만들어진 묘에 부채질하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긴 남자가 과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과부가 죽은 남편이 무덤의 풀이 마르면 개가하라고 했기에 이런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마침 술책을 할 줄 알아서 그 과부를 위해서 무덤의 풀이 누렇게 마르도록 도와주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길에서 만난 과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다. 아내는 그 과부를 크게 비난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다짐했다. 남자는 아내의 뜻을 시험하기 위해 죽는데, 아내는 남편의 문상객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사실은 죽음을 가장했던 남자가 깨어나 아내를 무안하게 하자, 아내는 자살하고 말았다. 아내가 죽은 것을 안 남자는 물동이를 끌어안고 그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줄거리를 따라가면,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 죽음까지 가장하는 남편이 아주 심각한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입장에 서서 <고분지통>을 살펴본다면 이 설화에서 문제적 인물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자신의 행동은 인지상정이며 남편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항변했다더라면, 이제 남편이 자신의 부정을 알아차렸으니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다면서 홀연히 떠났더라면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편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실수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살까지 감행하게 된 아내의 행동은 그렇게 건강해보이지 않는다. 이는 다음 설화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중국의 장자(莊子)가 집으로 오는데 무덤 앞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 (2) 장자가 이유를 물으니, 여인이 “남편의 유언이 무덤 풀이 마른 뒤에 개가

(改嫁)하라는 것이었는데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라고 했다.

- (3) 장자가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꽤 씹힌 년을 죽도록 때주고 왔어야 한다며 자기와는 근본이 다르다고 했다.
- (4) 그날 저녁 장자가 갑자기 죽는 시늉을 하며 죽어버리자, 부인이 통곡을 하고 입관을 시켜 빈소를 차렸다.
- (5) 장자의 친구가 와서 조문을 하고 가려는데 부인이 첫눈에 반해서 같이 살자고 했다. 친구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부인이 “일부함원(一婦含怨)이면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겠다.”고 했다.
- (6) 어쩔 수 없어 친구가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밤중에 친구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죽는다고 난리를 쳤다. 친구가 약이 멀리 떨어진 집에 있어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인에게 죽으면 장사나 지내달라고 했다. 부인이 하루아침에 두 번이나 상부(喪夫)하게 생기자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친구가 사람의 골수(骨髓)로 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부인이 도끼를 들고 전남편의 관을 깎았다.
- (7) 장자가 기지개를 키면서 일어나자, 부인이 새 남편 살리려고 전남편 골을 깨려했던 생각을 하고는 무안해서 다락으로 올라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
- (8) 이번에는 상처(喪妻)한 장자가 부엌에서 물동이를 갖다놓고 두들기며 “당신이 죽었으니, 이제 누가 내 밥을 해 줄 거요.”라고 노래를 불렀다.
- (9) 고분지통이란 물동이를 두드리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상처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는 이야기이다.²⁷⁾

위 설화에 나타난 남편(장자)은 특정한 규칙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물이다. 그렇기에 과부가 묘를 말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27) 『한국구비문학대계』 3-4, 학산면 설화27, <고분지통(鼓盆之痛)의 유래>, 송재충(남, 68), pp.594~599.

은 대개 자신이 한 행동(과부를 도와준 행동)에 대한 지지를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의 말을 들은 부인은 화를 내기만 한다. 부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남편이 죽으면 남은 부인은 수절해야한다는 관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장자)은 부인이 묘를 말리고 싶어 했던 과부를 꽤섬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과연 부인은 과부와 같은 입장에 놓이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시험해보려 한다. 그리고 남편은 시험을 위해서 죽음을 가장하기에 이른다.²⁸⁾ 하지만 결과는 실패이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남편의 시험을 통과할 만큼 건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부인이 좀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훼손한 상황이 발각되었을 때에 자신의 상황이 그전에 남편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우울증적 인지왜곡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부인이 ‘과부는 수절해야 마땅하다’는 덕목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녀가 공정성욕구라는 인지왜곡에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정성욕구는 우울증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욕구의 정도가 깊고 장기화된다면 일종의 편벽된 의견으로 굳어지고 만다. 그리고 공정성 욕구가 “인생이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대로 되어야한다는 믿음, 사람들은 공정해야해, 선행에는 항상 보상이 뒤따라야해”²⁹⁾ 등으로 고정되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부인은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던 공정성 욕구에 걸려 넘

28) 남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부인의 경직된 사고를 바꾸고 싶어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29) Mark Gilson, Arthur Freeman 지음, 최병휘, 이종선 옮김, 『우울증의 인지치료-우울증 BEAST 길들이기-』, 시그마프레스, 2006, p.108 참조.

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성의 욕구에서 ‘선행에는 항상 보상이 뒤따라야한다’는 고정된 관념은 반대로 ‘악행에는 항상 징벌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해볼 것이 자살을 일으키기 쉬운 상황들이다. 대개 사람들은 정서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 혹은 가혹한 억압이나 당혹스러운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자살을 감행한다고 한다.³⁰⁾ 이에 따르면 장자의 부인이 죽게 되는 상황은 바로 당혹스러운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그녀는 불륜의 현장이 발각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새로 만난 남자를 위해 전남편의 곁을 깨뜨리려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나아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예전에 전남편(장자)이 도와주었던 과부(묘를 말리고 싶었던 과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으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정리해보면, 우울증에 관한 서사로 <고분지통>설화를 읽었을 때에 <고분지통>설화는 수치심과 공정성욕구에 대한 서사가 된다. 즉 부인이 자기남편의 도움을 받은 과부를 극렬히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공정성욕구에 따른 행동이며, 자신의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을 때에 아주 쉽게 휘절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작용하는 공정성욕구의 허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휘절한 상황이 장자에게 발각되었을 때에 부인이 무안해하며 뛰쳐나가 자살하고 마는 것은 당혹스러운 상황과 그로 인한 수치심에서 탈출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이다.³¹⁾ 그리고 <고분지통>을 통하여 우울증적 성향이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급작스럽게 바꾸려는 시도나, 시험은 위태롭

30) Mark Gilson, Arthur Freeman 지음, 최병휘, 이종선 옮김, 『우울증의 인지치료-우울증 BEAST 길들이기-』, 시그마프레스, 2006, p.11 참조.

31) Aaron T. Beck 지음, 원호택 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학지사, 2001년 1판 3쇄, p.221. 우울증이 심한 환자는 터무니없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자기 탓을 한다. …… 이러한 비현실적 자기비난에 의해 환자는 더 기분이 나빠진다.

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남편(장자)이 죽음을 가장하여 부인을 시험한 것은 개방적 사고의 소유자였던 남편에게는 장난처럼 가벼운 문제였지만,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였던 부인에게는 수습할 수 없는 덫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우울 증상을 지닌 인물을 돕고자한다면, 먼저 그(그녀)의 우울 증상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콩쥐팍쥐>에서 발견한 의존과 무기력이나 <상사뱀>에서 발견한 집착과 흑백논리 보다 <고분지통>에서 발견되는 공정성욕구와 수치심이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현상으로부터 기인한다. 만일 남편(장자)이 자기 부인이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성급하게 부인을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를 우울의 터널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다림과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느끼게 된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분지통>은 부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이기에 이 작품을 통해서 발견한 수치심과 공정성욕구라는 우울증적 특성은 부부서사에 속한 작품들에서 더 자주 발견될 여지도 많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 논문은 우리 설화작품으로부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문학치료적인 단서 찾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문학치료학에서 서사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기초서사 네 영역(자녀서사영역, 남녀서사영역, 부부서사영역, 부모서사영역) 중에서 자녀서사 영역에 속한 작품인 <콩쥐팍쥐>, 남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 <상사뱀>, 부부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 <고분지통> 등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리하여 <콩쥐팥쥐>, <상사뱀>, <고분지통> 등에 각기 서로 다른 우울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한 해결방식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콩쥐팥쥐>에서 콩쥐는 ‘의존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증상을 극복하는 데에는 따뜻한 배려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엄정한 가르침이 필요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사뱀>에서 상사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처녀는 ‘집착과 흑백논리’에 빠져 있었으며,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한 상태에서는 다정하게 감싸주지만, 일정 정도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냉정하게 밀쳐내는 일이 필요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분지통>에 등장하는 수절하지 못한 부인은 ‘수치심과 공정성욕구’에 얽매어 있었으며,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그러한 감정을 견어 내거나, 시험하는 것은 위험하며,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배려하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 속에서 ‘의존과 무기력’, ‘집착과 흑백논리’, ‘수치심과 공정성욕구’ 등의 짝으로 나타나는 우울 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 어떤 증상과 어떤 증상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발병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문학치료현장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작품서사로 활용되는 경우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작품들이 각기 다른 기초서사영역에 속한 작품인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녀의 입장에 서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며,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위축되어 고민하는 경우에는 <콩쥐팥쥐>와 같은 작품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절히 사용될 것이며, 남녀관계의 문제가 고민인 경우, 특히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에는 <상사뱀>과 같은 작품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절할 것이다. 또한 부부간 가치관의 차이로 현상에 대한

이견과 그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분지통>과 같은 작품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 적절하리라 본다. 물론 문학치료현장에서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고 다양하게 이상심리와 관련된 작품분석이 집적되어야 하고, 접근방식의 구체적인 실상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우울증을 위해서는 위의 세 작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1.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2. 논저

네이버뉴스, 국민일보(2006-07-07 21:35)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pp.115~148.

김중술, 이한주, 한수정, 『사례로 읽는 임상심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651.

엄수경, 「<콩쥐팍쥐>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 고찰」, 『남도민속연구』 제13집, 남도민속학회, 2006, pp.249~275.

임재해, 「민속 문화에 갈무리된 성과 사랑의 갈래별 인식」, 『실천민속학』 제8호, 실천민속학회, 2006, pp.7~89.

정운채, 「고전문학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pp.103~126.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문학과치료, 2006 초판1쇄, p.436.

정운채,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 『문학치료연구』 제5집, (도서출판)문학과치료, 2006, pp.161~170.

조은상, 「<엮질러진 물>에 대한 반응특성과 우울성향의 부부서사」,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제67차 학술대회 발표문, 강릉대학교 생명과학 2호관 227호, 2007년 7월 9일~10일.

- Aaron T. Beck 지음, 원호택 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학지사, 2001년 1판 3쇄, p.486.
- Gerald C .Davison, John M.Neale, Ann M.Kring 지음, 이봉건 옮김,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시그마프레스, 2006년 초판3쇄, p.577.
- Mark Gilson · Arthur Freeman 지음, 최병휘 · 이종선 옮김, 『우울증의 인지치료 — 우울증 BEAST 길들이기 —』 시그마프레스, 2006, p.153.
- Peter D. Kramer 지음, 고정아 옮김, 『우울증에 반대한다』, 플래닛, 2006, p.415.

ABSTRACT

A Study on the Epic of Depression: <Kongji and Patji>, <Sangsa Snake>, <Kobunjitong>

Kang, Mi-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ave a literary therapeutic clue for depression recovery by Korean folk tales. Therefore, I analyze <Kongji and Patji> belonged in son and daughter epic realm, <Sangsa Snake> belonged in man and woman epic realm, <Kobunjitong> belonged in husband and wife epic realm.

After analyzing those research materials, I found various ways of solution to recover depressive symptoms. For instance, in <Kongji and Patji>, Kongji was suffering from "dependence and languor". For recovering this depressive symptoms, she needs to be taught and careful concern. In <Sangsa Snake>, dying lady who was suffering from lovesickness is obsessed with "attachment and one-track mind". For recovering this depressive symptoms, she needs to be well cared. But after passing the crisis, she also needs to be pushed coolly. In <Kobunjitong>, the unfaithful wife was obsessed with "shame and desire of justice". For recovering this depressive symptoms, she needs to wait and take the trouble, not act rashly.

<Kongji and Patji>, <Sangsa Snake>, <Kobunjitong> are related to depression. Those Korean folk tales can be used as the epic of literary work for literary therapeutic practice. There are another expectation of those folk tales. For example, <Kongji and Patji> can be used as the epic of literary work when someone who feels unloved by parents, and worries about not doing well oneself. When someone who has trouble with one-sided love, <Sangsa Snake> can be used as the epic of literary work for diagnosis of depression. When someone who has trouble with their

partner for a split in opinion, <Kobunjitong> can be used as the epic of literary work for diagnosis of depression.

For effects of literary therapy in practice, this research should be more precise, and the analysis of Korean folk tales needs to be accumulated. However, for a start, I expect that those three tales can bring the effects for depression recovery.

Key Words literary therapeutic clue, the epic of literary work, depression, the epic of depression, dependence, languor, attachment, one-track mind, shame, desire of justice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